

## SNK, 中 게임 개발사 '레도 인터랙티브' 산하 5개 게임 인수

- SNK 자체 IP 활용한 게임 3개 외 별도 개발된 2개 계약 체결
- 특수관계간 거래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고수익 기대



SNK(대표 갈지휘)는 레도 인터랙티브(Ledo Interactive (Tianjin) Technology Co., Ltd)와 회안덕운 네트워크(Huaian De Run Network Technology Co., Ltd.)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의 영업양수와 관련 계약을 확정, 향후 모바일 게임 서비스 및 사업 부분을 주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어제(16일) 공시한 양사간의 영업양수도 결정에 따른 조치로 16일 SNK의 손자회사 천진세용문화전매유한공사(Tianjin Seiyō Culture Media)는 양도자 2개 회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모바일 게임 5개 게임을 양수한다는 내용이다.

양수하는 5개 모바일 게임 중 3개는 SNK 소유 IP로 개발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 OL, 킹 오브 파이터즈 월드 및 사무라이 쇼다운 룡월전설이다. 이 중 사무라이 쇼다운 룡월전설의 경우 SNK의 '사무라이 쇼다운' 라이선스를 활용해 모바일 시대에 맞춰 리뉴얼 하면서도, 당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 출시 전부터 게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출시 후 곧바로 중국 텐센트 플랫폼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한바 있다. ('18.12.07 소후(Sohu) 기사 참조)

SNK인터랙티브 전세환 대표는 “이번 인수는 특수관계자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한 거래로 순이익이 측면에서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며 “또한 SNK의 주 경영 모델인 IP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mailto:skchun@snkcorp.co.kr))

###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